



자생 나리류 화단이용과 재배기술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하늘나리, 참나리, 섬말나리, 땅나리... 자생화 중 나리류 만큼 꽃이 크고 원색적인 것도 흔치 않다. 나리류는 전 세계적으로 130여종이 있는데 이 중 71종이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북반구의 아열대에서 아한대지역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해발 2,000~2,500m 정도의 고지대에도 자생한다. 우리나라도 매우 중요한 나리 원산지 중의 한 곳으로 변종을 포함 전국에 15종이 자생하고 있다. 특히 솔나리는 꽃색이 분홍색으로 나리의 주요 육종모본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섬말나리는 울릉도에 분포하며 희소 가치가 비교적 큰 식물이다.

1. 생리생태 및 이용

나리류는 6~7월의 초여름부터 여름동안에 개화된다. 개화가 좀 빠른 것은 하늘나리, 섬말나리, 털중나리이다. 대부분 종은 반 그늘진 곳을 선호하는 편이며 참나리, 하늘나리, 땅나리, 중나리 같은 것은 완전 양지조건에서 생장이 좋다. 나리류는 모두 구근류에 속하는데 흔히 인편으로 번식하지만 종자번식도 가능하다. 종자의 발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지하에서 하배축이 자라 구근형성 후 본엽이 지상으로 돌출하는 지하조기발아형(섬말나리, 말나리)과 떡잎이 지상으로 돌출한 후에 구근이 형성되면서 본엽이 출현되는 지상발아형(하늘나리, 땅나리, 털중나리)이 있다. 종자로 번식하면 개화까지 2~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땅나리, 하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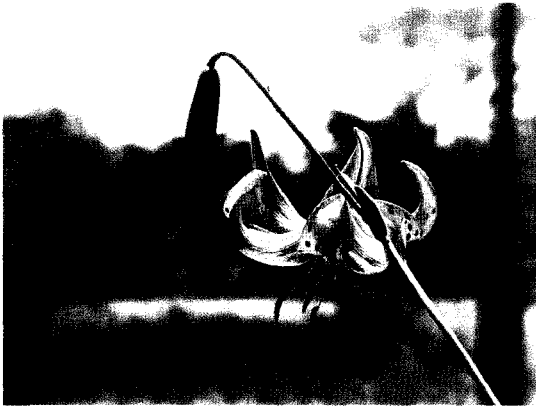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자생나리의 개화 모습)



▲ 하늘말나리



▲ 섬말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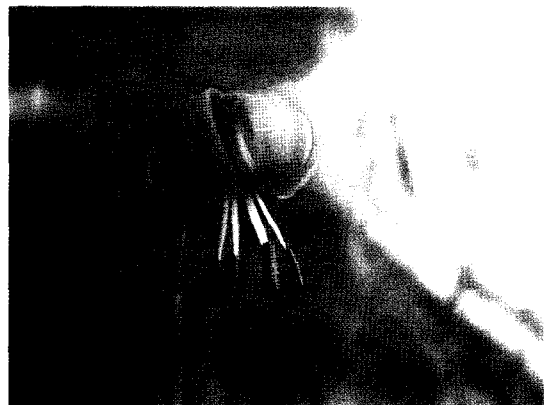
▲ 참나리



▲ 하늘나리



▲ 슬나리



▲ 땅나리



▲ 중나리

리, 솔나리, 털중나리 등은 2년 만에 개화될 수 있다.

자생 나리류는 꽃이 크고 아름다운데다 추위나 더위에도(하늘나리, 섬말나리는 약한 편) 강한 편이어 전국에서 화단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꽃대가 곧고 길며 꽃이 화려해 꽃꽂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장억제제를 이용할 경우 분화용으로도 쓸 수 있다.

2. 재배기술

가. 실생묘 생산

나리류는 자연수분에 의해 종자결실이 잘 되고

야생종은 개체간의 변이가 적어 종자번식에 의한 구근 양성이 용이하다. 종자는 10월 하순경 충분히 성숙되는데 너무 익으면 꼬투리가 터져 종자가 달아나므로 9월 하순이나 10월 상중순에 삭과째 따서 채종한다. 섬말나리는 수정 후 30~40일 된 미숙종자도 발아 가능하다. 이 경우 삭과째 냉장고에서 보관하여 2개월 정도 후숙시켜 파종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성숙된 것들은 채종 후 빨리 파종하여 생육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자구 생산에 유리하다. 하늘나리 등 지하발아형 종자는 가을보다는 3~4월경의 봄에 파종하는 것이 관리상 유리하며, 섬말나리 등의 지하발아형은 채종 후 온실에 파종하여 2~3개월 정도 지나면 소구가 형성된다. 파종은 파종상이나 비닐봉지에 하는데, 비닐봉지는 지하발아형 나리의 대표적인 실생번식 방법이다. 종자 200립 + 버미큐라이트 100g을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상태로 어두운 곳에 두면 2개월 정도 후 소구가 형성되는데 이때 발아상의 온도는 20~25℃ 정도로 유지해준다. 파종 후 상토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 관수하고 신문지, 짚, 비닐 등으로 덮어 습도를 유지해 준다. 일단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덮은 것을 걷어주고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편 참나리는 줄기에 난 잎겨드랑이 사이에 주

(표 1) 자생 나리의 형태 및 생태적 특성(1991, 정정학)

식물명	개화기	꽃 색	꽃폭 (cm)	잎 모양	키 (cm)	번식방법	기 타
하늘말나리	7	주황	5.5	윤생 1단	70~140	실생, 인편삽	
섬말나리	6~7	황	6.0	윤생 2~4단	90~150	실생, 인편삽	내음성
말나리	7~8	주황	5.6	윤생 1단	60~110	실생, 인편삽	내음성
참나리	7~8	주홍	11.0	호생	90~180	주아, 인편삽	내음성
하늘나리	6초	적	5.5	호생	50~80	실생, 인편삽	
솔나리	7~8	분홍	4.2	호생	30~80	실생, 인편삽	내음성
땅나리	7~8	짙은살색	3.3	호생	70~120	실생, 인편삽	
털중나리	6~7	주홍	5.7	호생	40~120	실생, 인편삽	
중나리	7~8	주홍	9.0	호생	60~190	실생, 인편삽	인경은 지하경으로 연결

아가 달리는데, 이 주아를 떼어서 번식하기도 한다.

나. 인편삼 번식

나리의 가장 보편적인 번식방법으로, 자구를 단시일 내에 많이 달리게 하는 것과 자구로부터 출엽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핵심기술이다. 인편삼은 7~8월경 구근이 완숙되기 전에 하면 9월경 뿌리가 되고 자구가 형성이 되며 이듬해 잎이 나온다. 삼목 당년에 잎을 나오게 하려면 8-10주 정도 저온처리를 해야 한다. 인편은 무게가 0.1g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바깥쪽에 붙어있는 인편들이 자구발생도 잘 되고 무게도 무겁다. 삼목용토는 배수가 잘되고 보수력이 좋으며 거름기가 없고 깨끗한 것이 좋다. 모래, 톱밥,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수태 등 흔히 사용하는 용토이다. 삼목상의 온도는 20~25℃ 정도로 유지하며, 인편을 삼목상에 꽂은 다음 시들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해 준다(과습하면 인편이 부패).

섬말나리처럼 목자는 형성되기 어렵지만 분구력이 좋은 것은 인공분구를 한다. 8월 상순경 구근둘레가 25cm이상의 것을 뽑아 통풍이 좋은 곳에 2주정도 두면 인편이 시들면서 인편과 인편 사이가 벌어지면서 틈이 생긴다. 여기에 청결한 가는 모래 혹은 황토 등을 채워 심으면 이듬해에 생육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을에 구근을 수확해보면 인편삼의 경우보다 큰 구근이 7~8개 정도가 분구된다.

다. 병충해 방제

병해로는 다습할 때 잎, 줄기, 꽃잎에 발생하는 잎마름병, 잎, 줄기, 꽃, 구근에 발생하는 역병과 탄저병, 주로 구근에 발생하는 푸른곰팡이병, 여름부터 가을에 주로 발생하며 지면부위,

줄기와 구근이 갈색 수침상(水浸狀)으로 되고 차츰 물러 썩는 흰비단병, 포기전체에 발생하는 무름병, 구근 및 줄기썩음병 (Fusarium, sp. Rhizopus sp, Rhizoctonia solani 등) 등이 있다. 방제는 연작을 피하고 종구는 건전한 것을 이용하되 수확 직후 및 정식전에 벤레이트-T 200배액에 30분간 침지소독한다. 배수 및 관수에 주의하고 포장에 발병시는 다이젠엠-45, 안트라콜, 다코닐, 델란, 모두나, 디포란탄, 마이코, 오소싸이드 등을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충해로는 백합관총채벌레, 목화진딧물, 뿌리응애, 국화잎선충, 바이러스병 등이 있다. 방제는 연작을 피하고 상처가 없는 건전한 구근을 이용한다. 구근은 43℃에 30~60분간 온탕처리하면 효과가 크다. 구근은 상처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근소독은 디메토유제 1,000배액에 30분간 침지한다. 